

보도 일시	<전매체> 3. 9.(목) 12:00	-
-------	----------------------	---

담당 부서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책임자	과 장	이상천 (044-204-7290)
		담당자	사무관	이청수 (044-204-7854)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선영 (044-203-2611)
		담당자	사무관	김자영 (044-203-2607)
담당부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책임자	과 장	이범선 (02-2110-6340)
		담당자	주무관	라채민 (02-2110-6349)

문화도시와 로컬크리에이터가 '머물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든다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x '중소벤처기업부 로컬크리에이터' 정책 토크쇼 개최(3.9)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에 따르면 중소기업부(장관 이영)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3월 9일(목), 문화도시 영도구(부산)의 '블루포트2021'에서 지역 중심의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문화도시' 정책과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육성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정책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첫 번째 정책 토크쇼를 개최한다.

양 부처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없애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토대로 지역산업의 성장을 돕는 '정책 비밀'을 풀기 위해 정책 토크쇼를 기획했다.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를 접목하는 창의기반 소상공인을 로컬 브랜드로 육성하여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 지역문화 기반 조성, ▲ 로컬콘텐츠 발굴·육성, ▲ 창의적 문화인력

양성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정된 도시가 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지역 주도로 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간 국비 약 1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최대 4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며, '23년 기준 18: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 창업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이번 첫 번째 정책 토크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모종린 교수와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임학순 교수의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전국 24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도시센터 담당자와 골목상권 및 지역브랜드를 선도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가 사업 경험을 공유한다.

먼저 모종린 교수는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문화를 만들어가는 도시발전 모델을 제시한다. 코로나19로 생활반경이 좁아진 소비자들이 지역 상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요구하면서 지역 경쟁력이 중요해진 가운데 지역 콘텐츠로서 머물고 싶은 공간과 상가, 동네가 뜰 것이라고 말한다.

임학순 교수는 '문화도시 : 사람과 콘텐츠'를 주제로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의 사람, 장소, 콘텐츠가 '지역문화의 연결 플랫폼'이 되는 과정을 강연할 계획이다.

특히, ▲ 문화, 예술, 공예, 문화유산이 토대가 되는 '로컬문화예술 콘텐츠', ▲ 마을 축제, 문화 향유거점, 마을 지도 등 '문화적 장소와 공간 기반의 콘텐츠',

▲ 디지털 영상, 미디어콘텐츠, 출판, 게임, 굿즈 등 ‘문화디지털미디어 콘텐츠’,
▲ 문화관광 융합 여행상품, 농산물 디자인, 지역 생활양식 콘텐츠 등
‘로컬 융복합콘텐츠’ 등 K-로컬콘텐츠는 문화도시에서 영역이 더욱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강연에 이은 토크쇼에서는 영도문화도시센터 고윤정 센터장과 알티비피
(RTBP) 김철우 대표*가 사회를 맡고 문화도시와 로컬크리에이터 6명이
지역문화를 토대로 본인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경험과 정책협력의
방향, 애로사항, 고민 등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 [RTBP(Return to Busan Port / 돌아와요 부산항에)] 영도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발표자 6명은 아래와 같다.

‘공연예술스태프 협동조합 ALL’ 강상민 이사장은 제2차 문화도시 춘천
출신으로, 춘천마임축제, 춘천연극제, 춘천인형극제 등 다양한 축제를
기획하며, 현재 공연예술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에서 막연하게 공연예술 스태프를 꿈꾸는 사람들이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려면 ‘실습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 춘천이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카데미 ‘막’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연예술스태프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정스다방’ 박수정 대표는 제1차 문화도시 청주 출신으로, ‘직지’라는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이어가는 ‘동네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가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네기록관은 사라져가는
동네의 추억을 기록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주민의 동네 문화공간으로, 현재
17곳이 운영되고 있다.

청주 금천동의 동네기록관 ‘정스다방’은 박 대표가 40년이 넘는 자가주택을
개조해 카페를 운영하면서 동네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주고 있다.

‘오늘도 공휴일’ 이대원 대표는 제3차 문화도시 익산에서 귀금속 보석공단 제조업을 본업으로 하면서 귀금속 전문 금속공예 교육 및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대원 대표는 체험하러 오는 모두가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보석을 만들면서 공예와 휴식, 일상이 공존하는 공휴일 같은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익산지역의 보석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사업인 ‘익산 귀금속 보석 축제’에도 동참하고 있다.

‘럭키베이커리’ 김아람 대표는 유기농 밀가루와 토종 우리밀로 만드는 천연 발효종 식사빵 전문점을 운영 중이다.

속이 편한 발효종 빵을 통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골목 빵집으로서 현재 부산을 대표하는 로컬 빵집이 되었고, 빵을 통해 지역을 견인하는 핵심점포(앵커스토어)를 지향한다.

‘공장공장’ 박명호 대표는 목포에서 열린 창작실(메이커스페이스) ‘괜찮아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괜찮아 마을’은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싶은 다 큰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작은 사회 공동체 플랫폼이다. 박 대표는 청년의 아픔에 공감하고 지역에 방치된 공간이 많아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열린 창작실로 만들어 활성화하고 있다.

‘개향로프로젝트’ 이창길 대표는 인천 구도심 개향로 일대의 역사와 가치를 지닌 오랜 소상공인을 지역 콘텐츠와 연결해 지역브랜드를 육성하고 있다.

개향로의 쇠락한 노포들을 탈바꿈시키는 ‘개향로프로젝트’와 국내 최초로 쫄면을 만든 ‘광신제면소’의 면을 공급받아 국수를 제조·판매하는 ‘개향면’ 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힘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차관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이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와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부처는 정책 토크쇼를 시작으로 문화도시에서 로컬크리에이터가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협력의 틀을 만들 계획이다”라며,

“문화都市는 지역 문화거점 마련, 로컬콘텐츠 발굴, 문화인력 양성 등을 통합 지원해 문화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있다. 문화도시에서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을 이끄는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로컬크리에이터의 참여로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최근 떠오르는 골목상권에는 지역문화와 창의 기반의 창업가인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이 살아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서로 연결, 협력하여 골목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로컬크리에이터가 문화도시를 기반으로 더욱 활발히 활동하여 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인 협업과 사업간 연계로 지역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문화도시 × 로컬크리에이터 정책 토크쇼

2023. 3. 9.(목)

15:00~18:00

복합문화공간

블루포트2021

부산시 영도구 봉래나루로 138

인사이트 강연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

문화도시 : 사람과 로컬콘텐츠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교수

정책토크쇼

영도 문화도시와 로컬콘텐츠
고윤정 영도문화도시센터장
김철우 RTBP ALLIANCE(주) 대표

문화도시 사례발표

춘천: 강상민 공연예술스테프협동조합 ALL 이사장
청주: 박수정 정스다방 대표
익산: 이대원 오늘도공휴일 대표

로컬크리에이터 사례발표

목포: 박명호 공장공장 대표
부산 수영구: 김아람 럭키베이커리 대표
인천 중구: 이창길 개항로프로젝트 대표

문의 051-418-1863 영도문화도시센터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영도문화도시네트워크 RTBP

지역문화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화도시 × 로컬크리에이터 정책 토크쇼

2023. 3. 9.(목)

15:00~18:00

복합문화공간

블루포트2021



일정안내

내빈인사	15:00~ 15:10	환영사 문체부 전병극 1차관, 중기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
		축사 국회의원 황보승희 의원, 국회의원 박수영 의원
		인사말 김기재 영도구청장
인사이트 강연	15:10~ 15:55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연세대 모종린 교수
		문화도시 : 사람과 로컬콘텐츠 가톨릭대 임학순 교수
영도소개	15:55~ 16:05	영도 문화도시와 로컬콘텐츠 고윤정 영도문화도시센터장, 김철우 RTBP ALLIANCE(주) 대표
휴식	16:05~ 16:20	휴식 및 장내 정리
토크쇼	16:20~ 16:50	사례발표 문화도시 춘천: 강상민 공연예술스태프협동조합 ALL 이사장 청주: 박수정 정스다방 대표 익산: 이대원 오늘도공휴일 대표 로컬크리에이터 목포: 박명호 공장공장 대표 부산 수영구: 김아람 럭키베이커리 대표 인천 중구: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열린토론
	16:50~ 18:00	



문화도시 × 로컬크리에이터

정책 토크쇼 주요연사 소개

인사이트 강연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2021), 「인문학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2020) 저자
사람과 로컬 콘텐츠		임학순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문체부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실무검토단장

토크쇼 모더레이터

영도소개		고윤정 영도문화도시 센터장 영도를 상징하는 '한선잇기' 도시브랜드 창출, 세계 디자인 어워드 3관왕 수상
		김철우 RTBP ALLIANCE(주) 대표 '돌아와요 부산항에' 프로젝트 추진, 2021년 로컬크리에이터 협업과제 선정

토크쇼 사례발표

문화도시		강상민 [춘천] 공연예술스태프 협동조합 ALL 이사장 춘천 문화도시와 함께 지역공연과 축제 현장 중심의 교육사업 추진 사례
		박수정 [청주] 정스다방 대표 기록문화도시 청주의 문화거점 '금천동 동네기록관' 정스다방 운영 사례
		이대원 [익산] 오늘도 공휴일 대표 문화도시 익산에서 금속공예 공방과 금속공예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로컬 크리에이터		김아람 [부산수영구] 럭키베이커리 대표 부산 3대 빵집 중 하나, 로컬 라이프스타일 관점의 앵커스토어 운영 사례
		박명호 [목포] 공장공장 대표 지역 방치된 공간과 지친 청년이 만나는 스토리, '괜찮아 마을' 운영 사례
		이창길 [인천중구] 개항로프로젝트 대표 인천 구도심 개항로의 노포를 탈바꿈시키는 '개항로 프로젝트' 추진 사례